



소리주보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사진 : 박성규 라파엘 (이기대성당 · 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입 당 송 이사 30,19.30 참조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 1 독 서 바룩서 5,1-9

화 답 송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 (◎ 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후렴)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1.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2.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3.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

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4.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 2 독 서 필리피서 1,4-6.8-11

복 음 환 호 송 루카 3,4,6

◎ 알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굳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 음 루카 3,1-6

영 성 체 송 바룩 5,5; 4,36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젊은이 주보
Youth Week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12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교리 교사들)

하느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교리 교사들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담대하고 창의적으로 하느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환희의 잉태

2020년 8월 오랜 교구청 소임을 마치고 10년 만에 본당 발령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본당으로의 발령이기에 '실컷 사랑하며, 축복을 나누며 살아야지' 하는 바람과 함께 많은 계획과 목표를 품고 소임지로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계획은 인간의 몫이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느님이시라.' 도착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마스크를 벗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양 냄새를 풍기며 사랑을 나누기는커녕 양과 목자가 서로 얼굴 한 번 제대로 못보며 1년 반 가까이를 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더디건만 아쉬운 시간은 흘러만 가고 그에 맞춰 조급증은 늘어나던 어느 날의 묵상 중 다음과 같은 아쉬움이 떠올랐습니다.

“끝 모를 이 코로나 상황. 끝없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교회. 이 가운데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만 할까?” (아마 모든 사제들이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들여다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너의 삶을 열심히 살아. 내 안에서... 그러면 희망을 보게 될 거야.”

아! 또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늘 항상 제 안에 용기와 희망 그리고 꿈을 심어두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며 가꾸고 계심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더 고개 숙여 기쁨의 미소로 화답하며 감사드릴 뿐입니다.

대림!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은혜롭기 그지없는 환희의 신비! 이 대림의 한가운데를 지내는 우리 모

두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더 감탄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환희를 가슴 깊이 잉태하며 희망의 기다림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더 갈라져 버린 우리 삶의 골짜기, 경제적 어려움으로 높아진 산과 언덕, 굽고 거칠어진 갈라짐과 헤어짐이 더 커진 세상이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두시고 물 주신 희망과 믿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백신과 치료제가 성탄의 선물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제2독서, 필립 1,11)

김영환
로사리오 신부
사직성당 주임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가장 큰 힘은
하느님의 자비임을 잊지 맙시다.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 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제) 16:50

12.6(월)~7(화)
김영환 신부(사직성당 주임)
12.8(수)~11(토)
전재현 신부(양정성당 부주임)

사랑이 있는 세상
월~금 11:00~12:00
진행 : 조윤진 비비안나
12.8(수) <대림특강>
출연 : 이요한 신부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12.10(금) 14:00~16:00
진행 : 이재석 신부(부산평방 총괄국장)
<우린 찬양사도>
출연 : 13st, 열세번째 사도(제주교구)



2022년 부산교구 사목지침 해설 (1)

성체성사를 삶의 중심에 둡시다.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신앙과 말씀의 해’로 지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어려움 가운데 신앙인으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올해, 2022년 ‘성체와 말씀의 해’는 지난해의 ‘신앙과 말씀의 해’의 연장입니다. 이번 사목지침 첫 번째가 ‘성체성사를 삶의 중심에 둡시다.’입니다.

공관복음과 코린토 1서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직전, 성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드시면서 성찬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마르 14,22~25; 마태 26,26~30; 루카 22,14~20; 1코린 11,23~25) 즉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은 함께 모여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시대와 초기교회 때부터 성체성사는 교회 생활의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바와 같이 초기교회의 모습에서 이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사도 2,42)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주일에 ‘빵을 떼어 나누어 먹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빵을 나누어 먹는 것’은 바로 성찬례

를 말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미사가 중단되었을 때 우리들이 가장 목말라한 것은 바로 성체성사였습니다. 날마다 성체를 모시고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갔는데, 미사가 중단되어 우리들의 삶의 원천인 성체를 모실 수 없기에 활기를 잃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나를 먹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요한 6,57)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체성사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 11항)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2003년 4월 회칙 『교회에 성체성사로 산다』를 선포하셨는데, 그 회칙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교회는 성체성사를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다른 여러 선물 가운데 매우 값진 하나의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비할 데 없이 탁월한 선물로 받았습시다.” (11항)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내밀한 결합을 이룹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분을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 모신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성체성사를 자기 생활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2티 모 4,2 참조)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진리의 양식이 되셨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일도록 모든 사람을 초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은 교회 생활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 이미 우리는 미사가 중단되어 성체를 모실 수 없었을 때, 성체 조배를 통하여 삶의 힘을 얻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남겨둔 거룩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은 성사적이며 영적인 친교를 지향합니다. 자주 성체조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도록 합시다.

2022년 한 해 동안, 아니 그 이후에도 성체성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 3주간 연재됩니다.

■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행복을 전하는 이방인들

언제부턴가 우리 밥상은 풍족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먹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렴하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는 소식과 함께 특히 농어촌의 일손 부족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농어촌 노동력 대부분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상황에서 그들이 코로나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를 접한 후 저는 잠시 동안이었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물가 안정'에 필요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한낱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우

리 사회의 시각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결코 사회의 부수적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이들이 없어도 우리는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비싸게 먹어야 합니다. 농어촌 현장 노동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우리가 풍성한 밥상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단지 '인건비 절감'과 '물가 안정'을 위한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폐기의 대상은 음식이나 남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도 흔히 폐기의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모든 형제들』 19항)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한 그리고 자

신만의 풍요에 빠져있는 '이기적인 과소비'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자기만족만을 위한 목적과 그 목적이 충족되면 관심도 가지지 않고,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우리 인식에 교황님께서서는 죽비를 내리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성으로 차려진 밥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맛봅니다. 행복을 전하는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동하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행복을 전하는 그들을 외국인 그리고 노동자 이전에 '인간'이자 '하느님의 자녀', '우리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훈 알렉산델 신부

노동사목 free6403@hanmail.net



찬미받으소서

『찬미받으소서』 1항~2항 듣기

낭독: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우리 교구에서는 2022년 사목지침 '성체와 말씀의 해'를 지내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함께 읽고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매주 소개되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방법을 실천하며, 병들어가는 공동의 집 지구가 아름다운 생명력으로 넘쳐나도록 함께 돌보고 살려냅시다. 또한 매주 한 분씩 『찬미받으소서』를 이어서 낭독하는 유튜브 영상도 제공됩니다.

1.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아름다운 찬가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 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2. 이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마음대로 약탈할 권리가 부여된 주인과 소유주를 자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죄로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폭력은 흙과 물과 공기와 모든 생명체의 병리 증상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1항~2항 발췌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스티로폼, 플라스틱 컵, 병, 칼, 스푼, 포크, 빨대 등 일회용 제품 사용하지 않기



부산교구 역사 자료 수집 및 기증과 기탁

집중 수집 기간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집 장소 본당, 교구 사무처,
부산교회사연구소

부산교구 관련 자료의 내용

- 1990년 이전 신앙 및 교구 관련 자료
- 교구·본당·단체·기관의 행사와 활동이 담긴 사진
- 교구·본당·단체·기관의 회의록 등 기록 자료
- 그 외 교구 관련 자료
- 집안 소장 고문서

부산교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기증 유형

* '한국천주교사료목록화사업'의 사료 유형

구 분	세 부 항목
도서·간행물류	성경, 교리서, 전례서(예식서, 성가집), 신심·묵상서, 호교서, 천주가사, 교회 간행물, 성인전, 교회사, 기도서, 사전, 기타
문서류	강론, 과서, 교서, 권고, 규정, 담화, 대장, 도면, 배정기, 비망록, 서한, 알림장, 연설, 운음, 일기, 재산자료, 족보, 첩례표, 카드, 통계자료, 회유문, 회의자료, 회칙, 공문, 증명서, 명함, 기타
박물관류	미술품, 상징·상패, 성물, 성상, 악기, 유해·유품, 의복, 전례 기물, 제단 기물, 기타
시청각류	인화된 사진, 사진필름, 슬라이드 필름, 사진CD, 음성테이프류, 영상테이프류, 릴테이프류, 레코드류, CD/DVD류, 기타

부산교구는 1957년 1월 21일 설립되어, 현재 70주년을 준비하며 교구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구의 기록물을 비롯한 본당과 각 기관의 기록물 등 교구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교구민 개인이나 각 기관과 단체에서 소장한 교구역사와 관련된 종교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의 수집 및 기증과 기탁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들 자료는 교구역사를 정리하고, 가능한 자료는 디지털화하여 교구민들과 공유하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수집할 자료는 1990년 이전 교구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1990년 이후라도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기증이나 기탁해 주셔도 됩니다.

교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발행하고, 기탁을 원하는 자는 일정 기간을 정하고, 교구에서 보관한다는 기탁증서를 발행합니다.

‘성체와 말씀의 해’를 맞이하여 ‘말씀과 함께’의 실천 사항 <한 주간의 성경구절을 정하여 암송하기>를 위한 복음 구절을 따라 쓰거나, 나의 마음에 와닿은 나만의 성구를 적고 암송해 봅시다.

*** 1년 간 작성 후 모아서 보내주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루카 3,4)

[나만의 성구]

절취선

교 구

교구 혼인강좌 안내

· 일요일 15:00~18:50 (매월 1~2회)
· 부산가정성당, 울산대리구청
대상: ① 결혼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
② 교회혼인 준비하는 모든 기존부부
접수: 100% 온라인 (catholic-marry.or.kr)
비고: 회당 선착순 50커플, 당일접수 불가
문의: 441-3501(가정사목국)

'나자렛 성가정의 신비' 체험수기 공모전

기간: 11.14(일)~12.5(일)
주제: 성가정 21가지 미션수행 체험담
분량: 200자 원고지 6매 이상
시상: 최우수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50만원), 장려상(3명, 30만원)
문의: 각 분당 사무실(공문 열람)

본 당

부곡성당 사무장 구함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분당신부 추천서
자격: PC(한글, 엑셀)사용 가능자, 운전(1종보통)
문의: 516-2356

부곡성당 성가대 지휘자 구함

주일 교중미사 / 모집인원: 1명
문의: 516-2356(사무실),
010-5851-3050(성가대 부단장)

옥동성당 사무장 구함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분당신부 추천서
자격: PC(한글, 엑셀)사용 가능자, 회계가능자
문의: (052)261-6011, 6012

기관·제 단체·위원회

ARCA 청년성서모임 월례제미사

부산: 12.8(수) 19:30 가톨릭신학대학 대성전
울산: 12.13(월) 19:30 울산병영순교성지성당
주례: 권순도 신부(부산), 이광우 신부(울산)
문의: 519-0483, cafe.daum.net/psbiblefamily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부산: 12.9(목) 10:30 우동성당
양산: 12.13(월) 10:00 남양산성당
울산: 12.14(화) 10:00 아음성당
문의: 600-8800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일미사

· 12.21(화) 매일 세번째 화요일 · 가야성당
14:00 체나콜로 기도(성체현시 및 강복, 고해성사)
15:00 미사 및 안수(티없으신 성모님께 봉헌식)
지도: 윤명기 신부 / 문의: 010-8879-2376

부산교회사연구소 제106회 학술연구발표회

· 12.11(토) 14:00 / 문의: 519-0471
·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마르티노관 202호
1주제: 공소전에 관하여(김덕헌)
2주제: 한국 천주교 순교자 지식 연구(송란희)

성령새신 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집

-수요 치유기도회
· 12.8(수) 13:00~15:00
-금요 밤미사 시간변경
· 12.10(금) 20:30~22:30
-100단 목주기도회
· 12.13(월) 12:50~16:00

영성의집 직원 구함

서류: 이력서 / 속식 제공합니다
문의: (055)382-9465

부산시니어까리따스합창단 단원 모집

연습: 매주 화요일 14:00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
교정 내 음악교육원 / 대상: 55세 이상 여성
지도신부: 임석수 신부, 지휘: 김현성
문의: 010-5069-5955(이규에 단장)

음악교육원 전공2급 본심 오르간 연주회

· 12.13(월) 19:00 · 아음성당
연주자: 신지원, 이상아 / 지도교수: 최영희
문의: 519-0474~5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문의: 462-0334(평일 14:00~17:00)

교육·모집·기타

흰돌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주거·건강·식사·여가가 함께 하는 부산의 도심형
실버타운 / 입주: 독립생활 가능한 만 60세 이상
문의: 758-6231, 010-5574-6231

제18회 부산가톨릭문학상
및 신인상 시상식

일시 / 12월 17일(금) 18:00

장소 / 가톨릭센터 소극장

수상자 [본 상] 김태수 클레멘스(사직)
명 단 최옥자 마리아(기장)

[우수상] 박성미 아가다(양산)

[신인상]

최우수상: 류영근 바오로(안동교구 갈전마티아)
우수상: 임지숙 레지나(전포), 김철 라파엘(동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내역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2일~11월 28일]

모금 내역

소계 : 2,169,000원

사용 내역

노동사목(이주노동자 및 이주민 가정) 100,000,000

누계 : 701,667,700원

천곡성당 1,059,000	명지셋별Pr. 10,000	최수원 100,000	박대성 50,000	박순희 50,000
정경애 100,000	김순희 100,000	박지숙 50,000	연경심 50,000	김해숙 30,000
문혜숙 100,000	민수현 100,000	염수미 50,000	김현서 10,000	김엘리 10,000
주인석 100,000	박가나 200,000			

누계 : 926,937,552원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십시오.

[입금 계좌] 농협 301-0267-8167-11 예금주: 천주교부산교구 입금 시 성명(본당) 기록. 예) 홍길동(남천)

<p>(주) 씨피여행사</p> <p>www.cptravel.co.kr</p> <p>☐ 국제선항공: 010-3832-4106</p> <p>☐ 성지순례: 010-3837-6434</p> <p>☐ 하나공인인증센터: 247-5858</p>	<p>분도목공소</p> <p>제대, 강론대, 장패들 등 각종 성구 제작</p> <p>www.bundwood.kr</p> <p>공 장 : 262-1959</p> <p>대표번호 : 1544-2391</p>	<p>협성주단·한복</p> <p>결혼예복, 예단, 천연염색, 한복대여</p> <p>강 영 숙(헬레나) 이 용 복(안드레아)</p> <p>부산진시가지 1층 주단부 269~271호 (7호문 안쪽)</p> <p>646-1123</p> <p>010-3594-2137</p>	<p>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p> <p>정 경 우 (시몬)</p> <p>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p> <p>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p> <p>부산진시가지 1층 주단부 269~271호 (7호문 안쪽)</p> <p>744-8181</p> <p>상담 010-5616-8600</p>	<p>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p> <p>류마티스내과, 대장 내시경, MRI</p> <p>내과 전문의 8명,</p> <p>영상의학과 전문의 3명, 산부인과 겸진 1명</p> <p>박 인 호(루카), 서 수 홍(라파엘)</p> <p>하단역 2번 출구 208-5566</p>
<p>법무법인 대한중앙</p> <p>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제반 분야 각종법률상담</p> <p>대표변호사. 정 민 (가브리엘)</p> <p>513-3493, 010-9594-2360</p> <p>부산지방법원(거제동) 맞은편 서정빌딩 7층</p>	<p>준요양병원</p> <p>재활중점/치매/노인성질환</p> <p>병원장. 최 준 식(안토니오)</p> <p>상담. 문의 525-7711</p> <p>부산 동래구 안락동 433-5번지(충렬대로 372)</p>	<p>안락성모안과</p> <p>백내장 / 노안수술 / 안종합검사</p> <p>쌍반변성, 녹내장, 드림렌즈</p> <p>원장. 장 현 덕(바오로)</p> <p>상담문의 525-5656</p> <p>안락로라리 부산은행 4층(충렬사역 2번출구)</p>	<p>덕천 길맥외과의원</p> <p>하지정맥류 중점 클리닉</p> <p>원장. 박 우 일(요셉)</p> <p>331-8888,8899</p> <p>덕천역 9번출구 앞 파리바게트 건물 6층</p>	<p>뉴욕초이스치과</p> <p>임플란트, 심미보철, 틀니</p> <p>미국임플란트전문 의 최 상 중 의 학 박 사</p> <p>866-2806, 2807</p> <p>시하철 연산역 5번출구, D메디컬센터 5층</p>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12.8(수) 10:00 · 월평성당
문의 : 010-9081-1743, 582-1774

삼위일체수녀회 가족회 미사

· 12.9(목) 15:00 · 수녀원
개인피정 문의 : 463-7660, 010-9740-7660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후원회 미사

· 12.9(목) 14:00 / 문의 : 634-4820, 636-4819
·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파티마 경당

티없으신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대상 : 봉헌의 삶을 살고자 하는 55세 이하 신자
문의 : 010-8503-0228(티없으신마리아성심 수녀회), 010-9310-5289(부산지부 회장)

살레시오미디어(독서미디어) 1학기 신규모집

초1~2 : 책과 함께 놀아요(50분/주1회/필독서 총15권)
초3~6 : 인문교양독서(75분/주2회/필독서 총10권)
중1~2 : 인문독서(90분/주1회/필독서 총10권)
문의 : 622-2431(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살레시오 <3S 독서 Day>

초1~2 : 1.10(월)~12(수) 14:00~17:00(선착순 20명)
참가비 : 6만원(재료비 외 포함), 도서개별구매
초3~5 : 1.17(월)~19(수) 14:00~17:00(선착순 20명)
참가비 : 8만원(재료비 외 포함), 도서개별구매
문의 : 622-2431(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마리아수녀회 알로이시오기지

말씀체침 신앙학교

4개분야(요리/목공/원예/미디어) 체침 및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특별한 하루
대상 : 초·중·고 단체 15명 이상 / 문의 : 250-8900, www.gizi1968.kr(홈페이지 참조)

마리아 학교 온라인 수강자 모집

내용 : 구원역사속의 성모님을 배우고 닮아가기
준실시간 수업 : 1.5~6.29 매주 수 14:00~16:00 <저녁반> 1.4~매주 화 20:00~22:00
회비 : 16만원(우리 1006-301-276411 티없으신 성심) / 문의 : 010-9620-4820(서울마리아학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

· 12.12(일) 14:00~17:00
·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입구역 1번출구)
대상 :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 010-3817-0567, columban.or.kr

맨발 가르멜 재속 회원 모집

대상 : 세례 받은지 3년이 지나고 견진을 받은 55세 이하인 자 / 문의 : 010-3861-0027(주일팀), 010-9413-9779(월요일팀), 010-5160-4754(화요일팀)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피정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2일 : 12.11(토)~12(일)/1.22(토)~23(일)
3박4일 : 12.16(목)~19(일)/1.6(목)~9(일)
8박9일 : 12.26(일)~1.3(월)/1.12(수)~20(목)
40일 : 12.20(월)~1.28(금)
문의 : 010-4906-5722, (031)953-6932

수도자들과 함께 하는 성탄 전례피정

· 12.23(목) 16:30~25(토) 13:30 ·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 24만원(대구은행 504-10-102896-6(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 (054)971-0722, 010-6791-0071

예수성심전교수녀회 2021 송년피정

· 12.26(일) 14:00 / 대상 : 40세 미만 미혼 남녀
· 예수성심전교수도회 강화 피정의 집 (온라인 참여 가능) / 문의 : 010-4386-3103(예수성심 전교수도회·수녀회)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역사, 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자연순례피정 : 12.11~13, 12.30~1.2
눈꽃산행피정 : 1.8~10, 1.21~23, 1.28~30, 2.6~9, 2.12~14, 2.19~22, 2.26~28
문의 : (02)773-1463, (064)756-6009

베네딕도영성관 성탄 전례피정

· 12.24(금)~25(토) · 대구 베네딕도 영성관
회비 : 7만 5천원 / '베네딕도영성관'을 검색하세요
문의 : (053)313-3425, 010-7103-3425

성도마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송년피정 : 12.29(수)~31(금)
성경완독 : 1.5(수)~13(목)
말씀피정 : 1.28(금)~30(일)
문의 : 010-3340-0201(황성 도마니코피정의집)

암환우를 위한 특별피정교육

· 1.17(월)~22(토) / 접수 : 1.10(월)~14(금)
문의 : (043)211-2113(성모꽃마을)

제주 성 이시돌 자연피정

· 3.6~8, 3.17~19, 3.26~28, 3.30~4.1, 4.4~6, 4.10~12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 (02)773-1455, (064)796-4182

30대 청년을 위한 구약 통독(ZOOM 수업)

· 1~12월 일요일 16:00~18:00 (3개월에 10만원)
지도 및 문의 : 010-4598-6912
(프란치스코회 김성태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2022학년도 정시모집

모집인원 : 정시 249명 + 수시이월인원
[기군] 유스티노자유대학(전면 원격수업 진행)
- 복지서비스학과/상담심리학과/경찰행정학과/부동산경영학과 / 학생부교과 선발(고교 졸업/검정고시 출신, 수능 미반영)
[나군, 다군] 단과대학 통합선발(희망학과 우선선택)
다양한 장학금·학생복지혜택
입학상담 : (053)850-2580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해외선교) 가르멜수도회	원하는 날 (미리 연락) 매월	부산 부곡동 본원 서울 가르멜수도원	010-9353-1773 010-2140-7414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기본이 충실한 대학

2022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21.12.30(목) ~ 2022.1.3(월)
- 모집학과 : 간호학과 외 14개 학과
- 문의사항 : 입학처(510-0702~8, 0804~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psi.cup.ac.kr)참조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메리놀병원

전국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을 심사 '우수'

메리놀병원TV 소아청소년과 박상인 과장

"배가 자주 오래 아픈 아이, 이것만 기억하자!" 유튜브로 확인해보세요.

부산가톨릭의료원 대표전화 : 465-8801

가톨릭센터 복음 문화 나눔 행복 한 세상

가톨릭센터 배움터 대실

- ▶ 110석, 60석, 30석 등 4개의 교실 운영
- ▶ 교육·세미나·워크샵 가능 / 음향·영상시설 구비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 ▶ 8층 21평, 6층 21평, 14평 ▶ 가톨릭 신자 및 단체 환영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베포) 758-1100 지하철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홍조·주름개선	미래고속관광 22년 국내성지순례 1월은 성지순례를 쉽니다 2월 순례계획은 추후 문자로 안내 예정 우 중 한 (리차드) 010-3720-0303	일산자동차매상사 매매·교환·위탁·폐차·각종보험 각종 차량 구입 및 등록 대행, 정비 상담 대표 조남철(네레오) 010-3573-8797 현대자동차 신차의 모든것 (제네시스, 아반떼 등)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	미카엘여행사 제주성지 순례 3일/4일 22.1.3~6, 1.7~9, 1.10~12 한국성지167 완주 1.17(월)~20(목) 전주.광주.대구교구 4일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라이프치과의원 전문의과 / 임플란트, 틀니 (65세이상 보철 임플란트, 틀니 환영) 치의학 박사, 최 재훈(바오로) 치의학 박사, 박 찬 아(요한 금구) 743-3334 해운대 31번 종점 맞은편 8층 건물(2층)
동아대학교 음악치료전공 석사·박사 모집 21세기 유망직업 (음악치료사) 문의 : 담당교수 이지우(마리아) 010-2350-8075	이삿집은 우리트렌스로 돌아가신 분 유품 처리해드립니다 대표 : 변성만(요한)·권명숙(로사리아) 582-1414 010-4042-8662	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베드로)	바른성모안과 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 장 최 베드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 242-0075 서구청 옆 바른병원 3층	독일보청기 부산최초제조허가, 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무료제작, 일반90%혜택)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석 수리 김 무 나 (클라라) *교우 특별 할인*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역 4, 6번출구(오중, 빨간색 건물)